

보도시점 2024. 8. 28.(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3. 8. 27.(화)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세종시, 제주도, 경남도 순으로 높아

- 생태계서비스 중에 자연공간 이용, 탄소 저감, 폭염 대응 순서로 필요하다고 응답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49%)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69%), 제주(63%), 경남(59%), 강원(58%), 전남(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 (질문) 귀하의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만족 18%, △조금만족 31%, △보통 37%, △조금 불만족 11%, △불만족 3%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 자연환경 만족도 : ('23년) ①세종(74%), ②제주(62%), ③강원(61%), ④전남(59%), ⑤경남(57%)
/ ('24년) ①세종(69%), ②제주(63%), ③경남(59%), ④강원(58%), ⑤전남(57%)

‘동식물 서식지 복원·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39%), 세종(39%), 제주(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되었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66%)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68%)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함.

생태계서비스 종류 : ①공급서비스(식량, 목재), ②조절서비스(온실가스 조절, 대기·수질 정화), ③문화서비스(여가, 휴양), ④지지서비스(생물 서식처 제공 등)

※ (질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자세히 알고 있음 3%,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3%, △들어본적 있음 40%, △들어본 적 없음 34%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21%)’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19%)’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2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질문) 다음 단어(지표) 중 귀하의 거주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환경의 효능을 3가지 선택해 주세요

☞ △공원, 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 21%, △탄소 저감 19%, △폭염 대응 17%, △식량 및 물 등의 공급 14%, △홍수·산사태 등 방지 10%, △대기조절 및 미세먼지 저감 9%, △기타 10%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2023년 5월)에서는 주 1회 이상 방문비율이 85%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조사가 6월에 실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되어 방문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질문) 귀하는 자연 경험을 위해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산, 하천습지, 들초지, 공원, 바다 등)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 △거의 매일 11%, △주 3~4회 18%, △주 1~2회 38%, △월 2회 18%, △월 1회 미만 15%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pm 1.083\%P(95\%$ 신뢰수준)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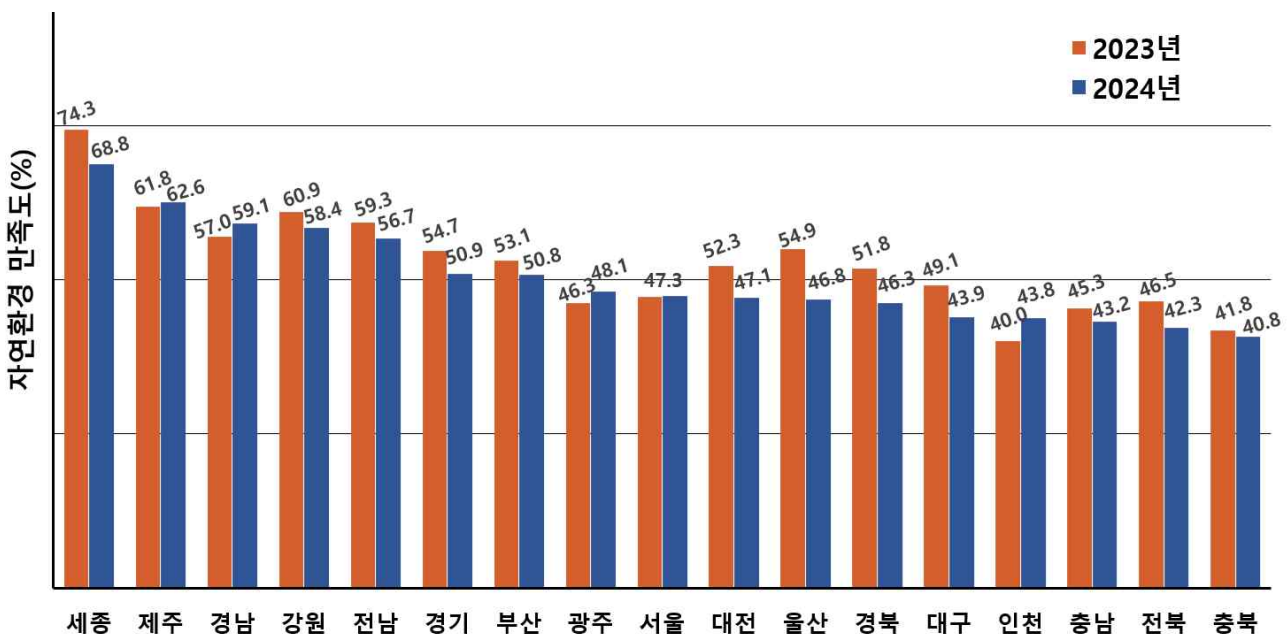
- 붙임 1.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2. 주요항목별 조사 결과.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현세환 (044-201-7222)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	책임자	팀 장	김진희 (041-950-5450)
		담당자	선임연구원 연구원	권혁수 (041-950-5452) 정필모 (041-950-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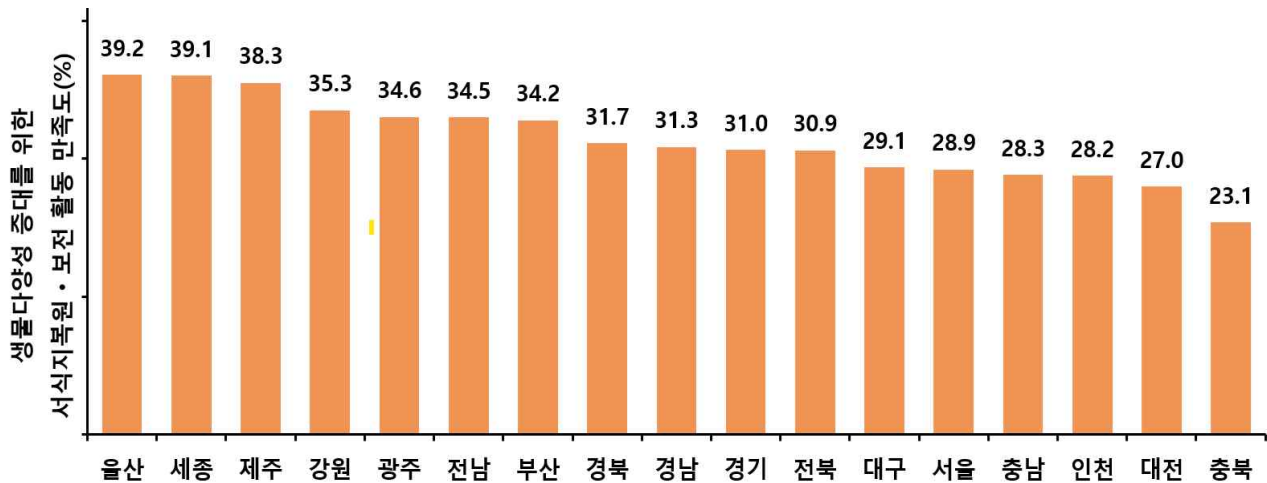


□ 연도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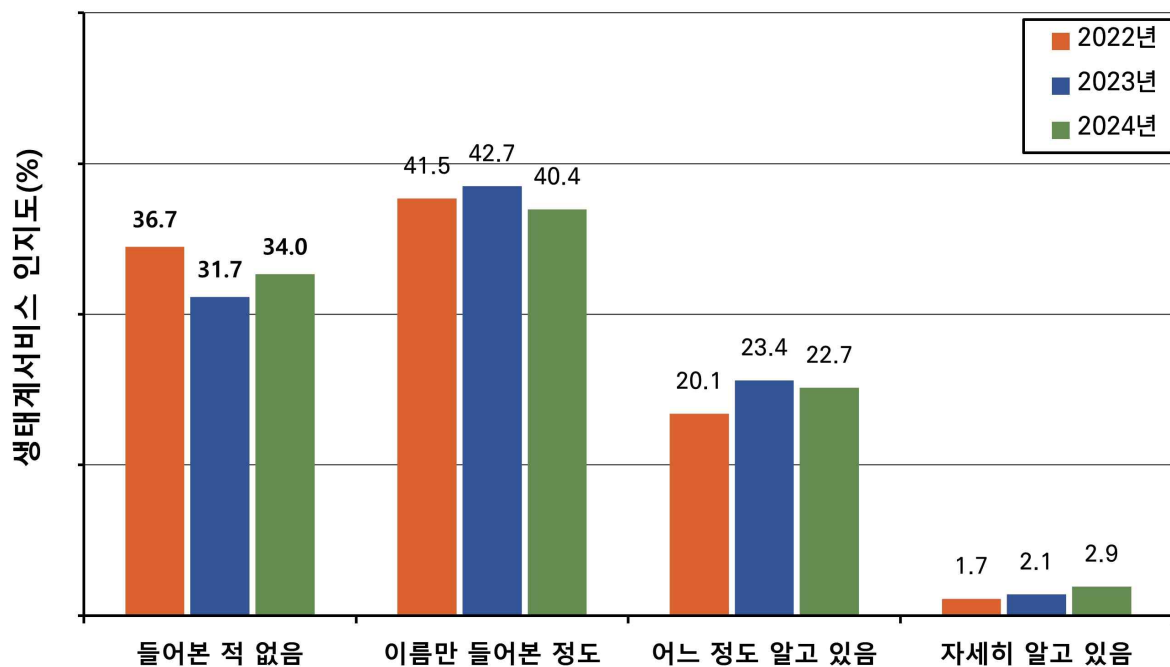
'23년 조사				'24년 조사			
순위	지역	자연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순위	지역	자연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계 : 17개 시·도		계 : 8,407		계 : 17개 시·도		계 : 8,163	
1	세종	74.3	70	1	세종	68.8	64
2	제주	61.8	110	2	제주	62.6	107
3	강원	60.9	256	3	경남	59.1	447
4	전남	59.3	268	4	강원	58.4	255
5	경남	57.0	505	5	전남	56.7	252
6	울산	54.9	182	6	경기	50.9	2,053
7	경기	54.7	2,221	7	부산	50.8	573
8	부산	53.1	524	8	광주	48.1	237
9	대전	52.3	260	9	서울	47.3	1,583
10	경북	51.7	416	10	대전	47.1	274
11	대구	49.2	378	11	울산	46.8	171
12	서울	47.3	1,589	12	경북	46.3	350
13	전북	46.5	286	13	대구	43.9	433
14	광주	46.3	242	14	인천	43.8	532
15	충남	45.3	340	15	충남	43.2	329
16	충북	41.8	268	16	전북	42.3	265
17	인천	40.0	492	17	충북	40.8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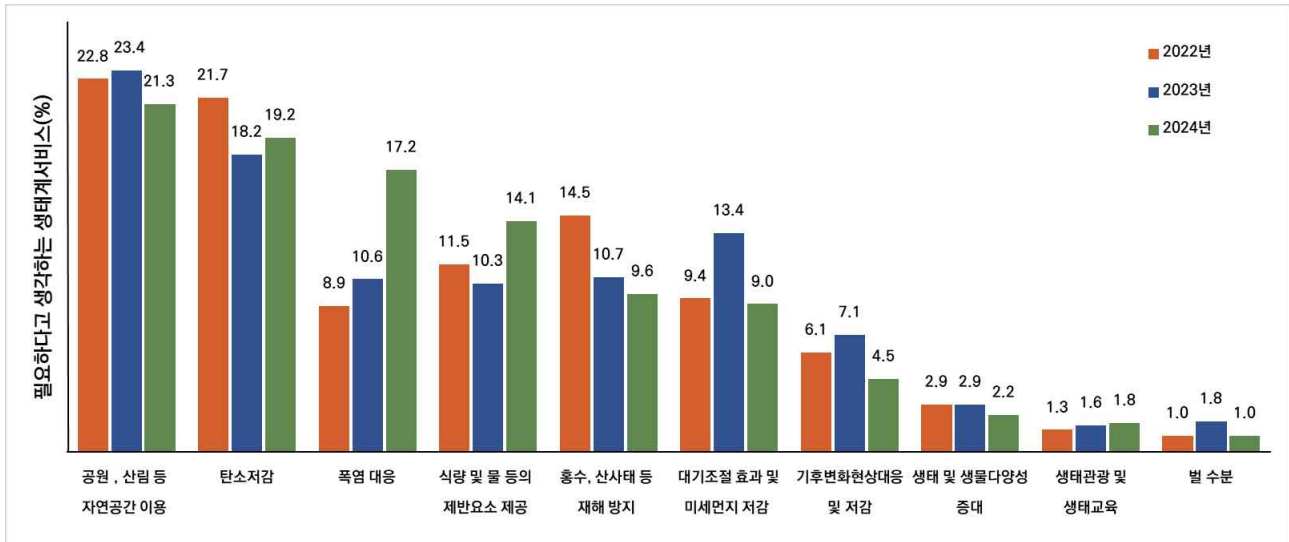
□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지복원 · 보전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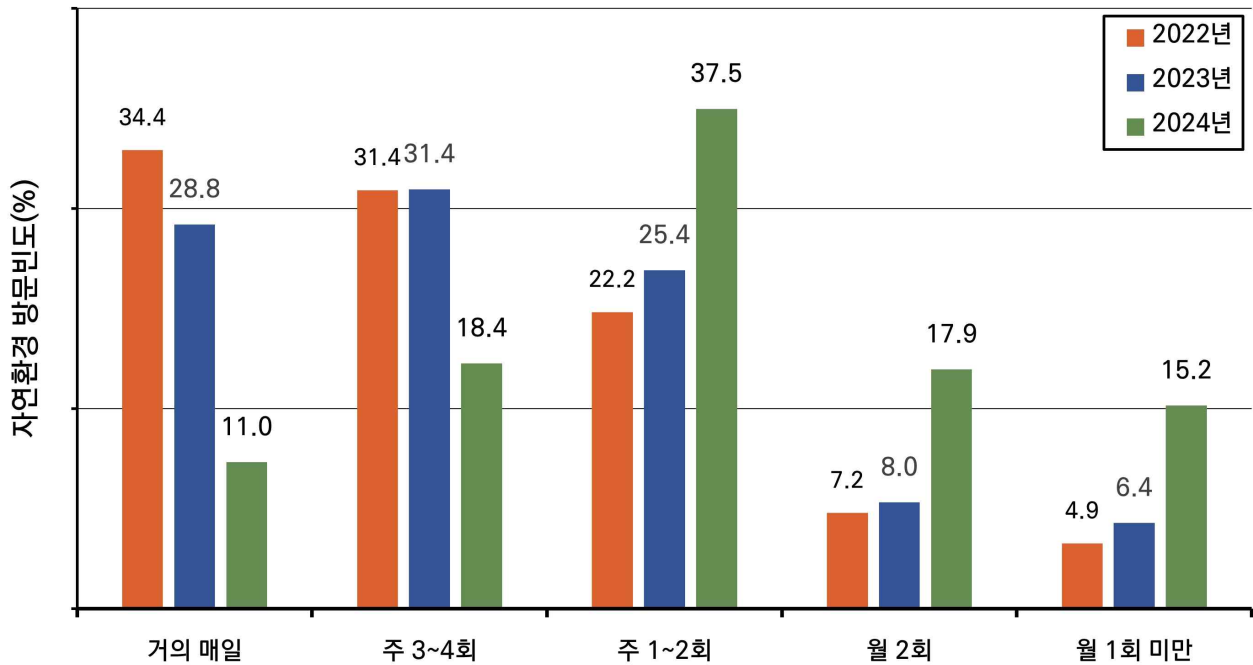
□ 생태계서비스 인지도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서비스



□ 자연환경 방문 빈도



1. 생태계서비스란?

-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말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공급서비스



담수



식량



자원



천연약재



친환경에너지

조절서비스



대기질 조절



수질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조절



수분



소음차단

문화서비스



경관가치



여가 및 관광



교육



예술적 영감



휴식과 건강



사회적 관계

지지서비스



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토양형성